

남에게

생을 통해 상상도 하지 못했던 과분한 사랑을 베풀어주신 분들께 드리는 감사의 말씀이 너무 늦었습니다. 연말의 이런저런 일로 어차피 늦어지고 보니 산적되는 연하장에 묻히기보다 그 때를 피해 보자는 데서 결례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다 그러했지만 2008년도의 12월은 저에게 있어 값을 수 없는 민폐를 크게 끼친 달로서 '감사하다' '부끄럽다' '죄송하다'는 말들이 저의 머릿속을 메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람을 찾아 산 제2의 생을 행복하게 하여준 한국여성재단의 이사장으로서 9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아름답게 물러나게 하여주시고 무엇보다도 제 생애에 꿈도 꾸지 못했던 삶의 편린을 책으로 엮어 출판기념행사를 치르기까지 많은 분들께 물심양면의 도움을 넘치게 받은 점에서입니다.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아도 되는 것인지 송구스럽습니다.

이미 출판기념행사에서 드린 말씀입니다마는 목적지향적인 남다른 삶을 산 것도 아닌데 산 흔적이 활자화되게 되었다는 것과 이견 아닌데 하는 자기의사를 관철해 내지 못하고 책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 부끄럽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죄송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던 것은 1970~1988년에 이르는 '여성운동 한복판에서'라는 대목에서 그 시대 그 상황에서 그렇게 대응하고 그렇게 산 것은 누구 혼자만의 삶도 아니고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도 아닌데 그 길목마다에 한 사람의 이름이 말뚝처럼 박혀있는 까닭이었습니다. 그 당시 함께 했던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찌되었거나 책은 세상에 던져졌습니다. 책이 만들어지기까지 아이디어를 내신 분들, 재정지원자, 출판사, 작가, 인터뷰에 응해 주신 분들, 사진과 책의 디자인 등의 재능기증자들, 기념행사를 위해 수고하신 분들, 순서를 맡으신 분들, 기념행사를 가능하게 하여주신 자칭 후배들, 기념행사에 참여하여 주신 분들, 그리고 화분 또는 화환, 그리고 축전을 보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머리 숙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베풀어주신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남은 생인 제3의 삶을 창의적으로 살기 위해 지금부터 열심히 고민하겠습니다.

우직함, 부지런함, 그리고 풍요의 상징인 소의 해인 2009년 한 해 동안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비록 적지 않은 사람들이 기축년을 어둡게 예측하고 있지만 빛을 이기는 어둠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얼음을 깨는 바늘 끝과 같은 희망을 잃지 않는 한 우리의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럿이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고 하는 말에 의지하여 '힘을 내십시오'. 버락 오바마의 '에스 위 캔'을 떠올리면서. 새해에 복 많이 받으세요.

2009년 1월

박영숙 드림